

美 중간선거 민주당 우위속 트럼프 지지율 ↑

민주당 48% 공화당 41% 지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관심도
공화당 지지세 결집 막판 변수

미국의 11.6 중간선거가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간 관심도 격차가 좁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공화당의 '막판 역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투표를 할 것으로 분류된 '적극 투표층'에서는 50%가 민주당을, 41%가 공화당을 각각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여성들 가운데 57%가 민주당의 다수당 장악을, 32%는 공화당의 다수당 장악을 각각 선호했다. 남성들은 52%가 공화당을, 38%가 민주당을 각각 다수당으로 원했다. 응답자 가운데 공화당원의 68%, 민주당원의 72%가 각각 이번 선거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WSJ은 이 같은 설문조항을 조사에 넣은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관심도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7%를 기록했다.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는 49%를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지난달 조사에서의 응답률 44%에서 3% 포인트 오른 것이다. 지난달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

답자는 52%였다. WSJ은 47%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지난 2010년 중간선거를 앞둔 10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5%보다 높다고 전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저점이었다. 2010년 11·2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기존 의석에 60석 이상을 보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고, 대통령 소속당인 민주당은 1938년 중간선거 후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특히 고정 지지층에서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54> 양염

양염(楊炎, 727-781)의 자는 공남이며 산서성 봉상현 출신이다. 양세법(兩稅法) 도입을 주도했다. 덕종 초 권력투쟁에 휘말려 사사되었다. 부친 양파는 과거에 급제했으나 부모 봉양을 위해 관직에 오르지 않아 칭송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문장이 뛰어났으며 자태가 늙름해 널리 인정을 받았다. 도교에 심취해 소양산인(小樵山人)이라는 별호를 얻었다. 하서절도사 여충부의 참모로 활동했는데 모친이 사망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효를 다하였다. 이후 이부의 사후위로망으로 복직했으며 예부와 병부에서 관리생활을 이어갔다. 필력이 뛰어나 각종 문서와 예문 작업에 빈번히 참여했다. 이부시랑으로 승진했고 왕조사 편찬에도 관여했다. 당대의 실력자 원재와 가까웠

전남(錢納) 방식이 활성화돼 화폐가치는 오르고 물가는 내리는 전권화전(錢貴貨賤) 현상이 일어났다. 양세법 실시로 "모든 권력이 비로써 조정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말이 널리 회자되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원재를 몰락시킨 유안과 사이가 나빴다. 유안이 전운사로 오랫동안 재정권을 휘두른 것을 시기하였다. 몰래 "유안이 대종에게 독고비를 황후로 삼도록 권했다"는 소문이 나도록 부추겼다. 독고비가 황후가 되었으면 그녀의 아들 환왕이 형이 제위를 이을 수도 있었으므로 덕종 입상에서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덕종에게 눈물을 흘리며 상소하기를 "유안은 여간, 유충익과 함께 모의하였고, 신은 재상이 되어 서로 토벌할 수가 없으니 죄가 마땅히 만반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서성은 국정의 근본인데 근래에 여러 사를 설치해

양세법 도입 주도 국가 재정 기반 닦아

다. 재정전문가 유안의 후계자로 거론될 정도로 재정운영 능력도 뛰어났다. 유안이 777년 부패 혐의로 처벌받자 그 무리로 몰렸으나 대종의 외삼촌 오주가 변호해 지방에 좌천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779년 대종이 죽고 태자 이괄이 덕종으로 재위에 올랐다. 강직한 최우보를 재상으로 기용해 개혁정치에 나섰다. 그의 추천으로 양염을 문하시랑 겸 동중서문하평장사로 발탁해 재상 반열에 올랐다. 재상으로서 여러 개혁조치를 추진했다. 수백년간 실시된 조용조(租庸調) 제도를 파기하고 호세·지세 등 여러 세금을 통합한 양세법을 건의했다. 양세법은 명나라때까지 이어져 역대 왕조의 기본 세제로 자리매김했다. 인두세와 재산세를 기초로 여름과 가을, 일년에 두 번 징수했다. 하세(夏稅)와 추세(秋稅)로 불린다. 양세법 실시로 세금내는 호수수가 크게 늘어나 세입이 대종 말기 1200만관에서 1300만관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재정운영 방식을 조용조 제도하의 양입제출(量入制出)에서 양출제입(量出制入)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대부분과 국제사회는 사우디 정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뜻을 같이했다. /연합뉴스

권력을 빼앗았으니 마땅히 옛날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건의했다. 결국 전과 양국 업무는 모두 금부와 장부로 귀속되고 유안이 가지고 있는 전운·조용·정묘·염천 등사는 폐지토록 하였다. 유안은 충주자사로 좌천되었다. 형남절도사 유준을 코드쳐 유안이 조정을 원망하는 편지를 절도사 주자에게 보냈다고 고발해 하였다. 결국 780년 유안은 사사되었다. 유안 처형 후 조야의 반발이 심해졌다. 변진의 절도사들은 자신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삭번(削藩) 정책 뒤에 양염이 있다고 믿어 미워하였다. 양염은 "유안은 옛날에 간사한 사람에게 끌려서 독고후를 세우기를 청하였는데 황상 스로가 그를 미워해 죽인 것이다"라는 말이 퍼지도록 꾸몄다. 덕종은 여사중 승노기를 문하시랑으로 발탁해 업무를 분담토록 하였다. 노기는 키가 작고 못생겼으며 학문이 부족해 양염은 그를 무시했다. 회서절도사 이희열이 조정에 반발하는 변진을 정벌하는 것을 주저하자 노기는 그의 기용을 건의한 양염에게 책임을 돌렸다. 결국 좌복야로 밀려 정사에서 배제되었다. 그는 장안에 가묘를 설치했는데 노기는 그의 가묘에 왕기(王氣)가 서려있다고 상주했다. 덕종은 781년 10월 그를 하남성 예주사로 좌천시켰다. 도중에 목졸려 죽었다.



대만 열차 탈선...22명 사망 대만 북동부 이란현에서 21일(현지시간) 열차가 탈선, 객차들이 철로 주변에 나뒹굴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 사고로 22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번 사상자 수는 지난 1981년 3월 철도 사고에서 30명이 죽고 130명이 다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강진·쓰나미
피해규모 눈덩이
경제손실만 1조원 육박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섬을 덮친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2일 트리뷴 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BP)은 중앙 솔라웨시 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경제손실이 13조8200만 루피아(약 9711억원)로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수도포 푸르위 누그로호 BNPB 대변인은 "잠정 집계치인 만큼 실제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중앙 솔라웨시 주 동갈라 리젠시(군·郡)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일어났고, 20분 뒤 진앙과 80km 거리인 팔루 해안에 약 6m 높이의 쓰나미가 들이닥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2256명이고, 1309명이 실종됐다. 중상자도 4612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하수가 올라와 지표면이 물러지는 지반 액상화 현상으로 거의 통째 땅에 삼켜진 마을이 다수여서 실제 사망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인도네시아 재난 당국의 공식 수색작업은 이달 12일 종료됐지만, 현지에선 실종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시신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2만3000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들은 팔루와 주변 지역 곳곳에 세워진 122개 임시대피소에 분산 수용됐다. /연합뉴스

사우디, 카슈끄지 피살 '꼬리 자르기' 안간힘

외무장관 "살만 왕세자 무관"
국제사회 비판·반발 확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피살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왕실이 직접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등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 주요국들이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터키 정부가 조만간 독자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반발은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아델 알주바이라 사우디 외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빈 살만 왕세자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알주바이라 장관은 "카슈끄지의 피살과 관련된 이들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했다"며 "이들 가운데 누구도 무함마드 왕세자와 가까운 관계

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우디 왕실을 두둔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그(왕세자)의 책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대부분과 국제사회는 사우디 정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뜻을 같이했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나주, 전원주택 부지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3605-5000